



금융위원회

보 도 실 명 자 료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11. 16.(수)
담당 부서	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 오화세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 박준상 (02-2100-2992)

소비자의 대환대출 실행가능 횟수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.

< 보도내용 >

- `22.11.16.(수) 이데일리는 「대환대출 플랫폼에서 1년에 4번 대출 갈아탄다」의 제하 기사에서
- “차주들은 1년에 4번까지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.”, “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대출을 대상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.” 라고 보도

< 금융위 입장 >

- 소비자의 대환대출 실행가능 횟수 등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결정된 바가 없으며, 추후 운영될 온라인·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참여자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할 예정이므로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